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비교과영역 활동 관리 체계



양 성 채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yangsc@jbnu.ac.kr

부경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나가사키대학 플라즈마응용공학 석사
나가사키대학 플라즈마응용공학 박사
(현)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1. 서론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 공학교육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이론 강의와 실험/실습 위주로 구성되던 교과과정에 설계교과목 신설과 함께 학습성과에 초점을 맞춰 개편 운영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공인원에서 지정한 12가지 프로그램 학습성과(Program Outcomes, 이하 PO로 표기함)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에서 개설한 교과목 별로 PO와의 연관성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적절히 이수하였을 때 PO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PO의 특성 상 제한된 교과과정 이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PO가 다수 있고, 이런 PO들은 비교과영역 활동을 통해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과영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PO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비교과영역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전북대학교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비교과영역활동 관리를 위한 체계

비교과영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12가지 PO를 달성하기 위한 비교과영역 활동이 적절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달성도 측정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PO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교과영역 활동들이 정의되고 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구축되었다고 해도, 학생들은 졸업 전 PO 달성도 평가를 통해서 인증 졸업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비교과영역을 반드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따라서 PO 달성 및 학생지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규 교과목화 하는 등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 내에서 비교과영역 활동을 강제하고 관리하기에는 미이수자에 대한 구속력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 최소한 단과대학 또는 대학본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비교과영역 활동을 무조건 강제화 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들이 참여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생들 스스로 경력관리 및 자기개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의 구축이 보다 현실적이며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제반 활동들이 문서화 되어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CQI를 위해 활용하고,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수진의 업무 부담을 경

공동저자 : 김기성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조교)

감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한 전산 지원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전북대학교의 예

전북대학교에서는 ‘큰사람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의 비교과영역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구축되어 2008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이는 공과대학에서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준비했던 전공포인트제와 평생지도교수제의 운영 노력이 대학교 전체로 확산된 사례이다.

전북대학교는 2006학년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면서 각 프로그램별로 비교과영역 활동들을 정의하고, 항목별로 포인트를 배정하여 참여한 학생들에게 해당 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공포인트제를 도입하였다. 포인트 성취 수준에 따라 장학금 배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해외 연수 선발 등에 특전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 프로그램에 지정한 비교과영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학생 지도를 위하여 기존에 학년별로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입학시부터 졸업후까지 같은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평생지도교수제’를 신설한 바 있다. 공과대학내에서 각 프로그램 단위로 자체 시행되었던 전공 포인트제는 학생 경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코자하는 대학본부의 의지로 대학교 전체로 확산하여 ‘전북대학교 큰사람프로젝트’의 형태로 확대 개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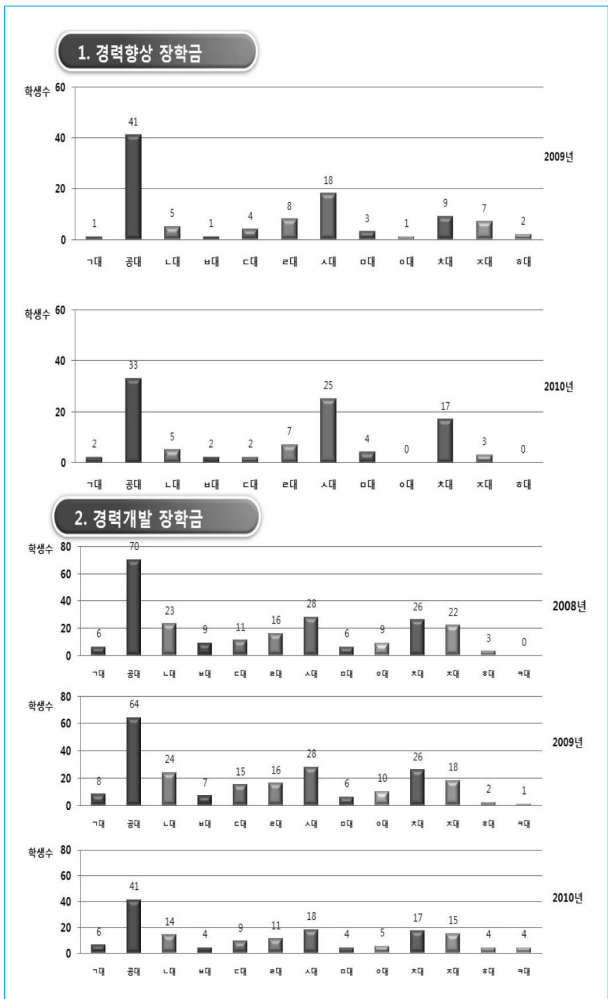
● 큰사람포인트(CDP : Career Development Point)

항목	①자아발견 [500 point]	②리더십 [500 point]	③글로벌 [500 point]	④역량강화 [500 point]	⑤취업활동 [500 point]	⑥전공활동 [500 point]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프로젝트 인적성검사 진로설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참여 집단훈련활동 독서활동 멘토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능력 한자능력 제2외국어 해외문화예술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국어능력시험 커뮤니티활동 동영상학습 공모전 및 입상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 취업과목이수 취업특강 기업체험활동 기업탐방 취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학생포드폴리오 공학공모전 기업체험활동 튜터링 공동체 참여

▲그림 1. 큰사람 포인트의 세부항목

큰사람프로젝트에는 평생지도교수제가 포함되어 운영되며 대학본부기관인 종합인력개발원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지도교수 상담을 정규 교과목화 하여 매 학기 2회 이상의 상담 실적이 없으면 학기 이수가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었고, 공과대학 특히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학생 지도와 비교과영역 활동에 대한 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큰사람포인트는 대학 전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아발견, 리더십, 글로벌, 역량강화, 취업활동 등의 5개 영역과 단과대학별로 적용되는 전공영역을 포함하여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세부 항



▲그림 2. 각 단과대학별 큰사람장학금 지급 현황

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공학교육인증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교과영역의 전공활동은 상담, 학생포트폴리오, 공학관련공모전, 기업체험활동, 튜터링, 공동체참여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큰사람 포인트를 획득하고, 대학에서는 그 성취도에 따라 매년 경력 향상 장학금과 경력 개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력 개발 장학금은 누적 포인트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경력 향상 장학금은 지난학기 대비 향상된 포인트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매년 공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체 학생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경력 향상 장학금 수혜 학생 중 공과대학 학생들의 세부 소속을 확인한 결과 2009년 수혜자 41명 중 5명을 제외한 36명이, 2010년 수혜자 33명 중 2명을 제외한 31명이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인증대상 학생들의 비교과영역활동 참여도가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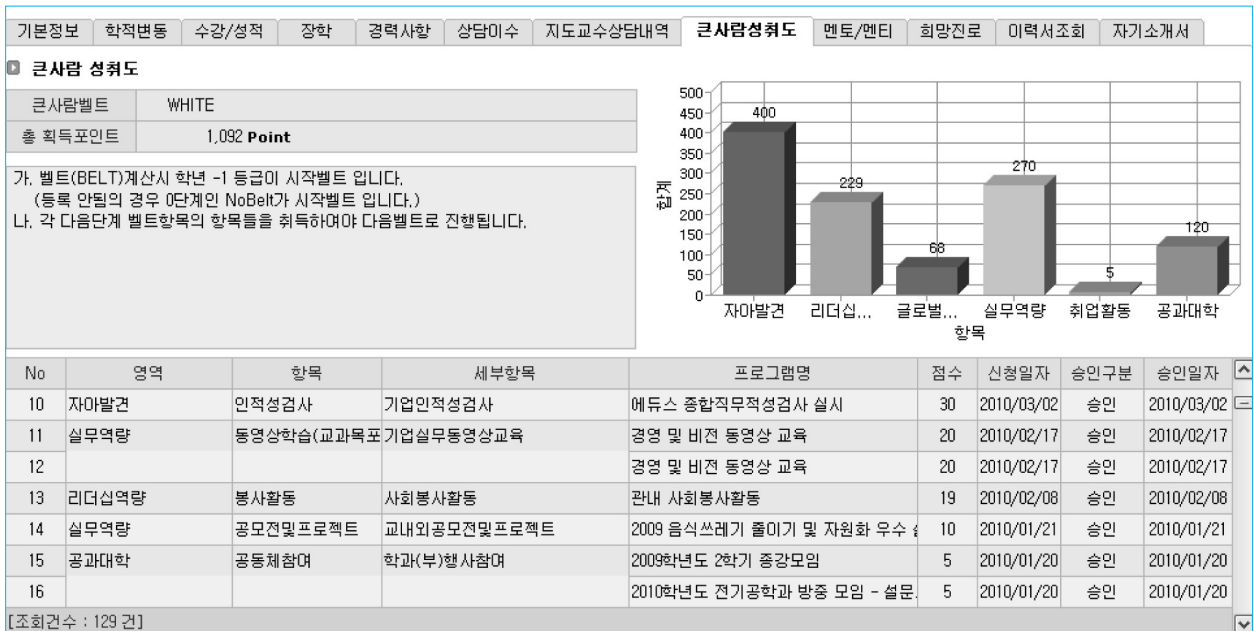
이러한 학생들의 비교과영역활동은 모두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학생본인은 물론 지도교수의 학생 상담 및

관찰에 활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학생 지도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교과과정 이수현황, 성적 등은 물론 비교과영역 활동내역과 그 성취도를 관찰하여 학생들의 잠재력과 희망진로에 대해 보다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여 지도 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지도교수 상담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체계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비교과영역의 관리 사례로 전북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큰사람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최근 대입제도에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학생부터 비교과영역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봉사활동 및 교내외 활동실적, 각종 수상경력과 외국어 및 자격증 등이 대학입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비해 자율성이 보장되는 반면 체계적인 지도를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학습성과와의 연관성에 근거한 비교과영역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교과목이수를 통해 성취



▲그림 3. 학생 개인별 비교과영역 활동내역의 예

하기 어려운 다양한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지도 체계를 구비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체계를 구축하였다 해도, 강제적인 시행 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높은 관심에 의해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며,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교과과정 이수 및 비교과영역 활동 현황을 수시로 관찰하여 학생 상담 및 지도에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